

사설

총무원장 선거를 보는 '눈'

"부처가 되고 싶으나, 총무원장이 되고 싶느냐"고 묻는 부처님 앞에서 기어올라가는 목소리로 "총무원장"이라고 대답하는 스님의 모습을 그린 박재동씨의 그림판을 기억하는 사람은 기억하리라. 지금의 개혁총단을 출범케 했던 그 총총했던 법남 당시, 총무원장직 때문에 온 불교계를 촉풍의 소용돌이로 몰고 갔고 불교의 위상을 더 이상 바다의 얼음 정도로 추락시켜버린 한 인물을 풍자하는 그림이었지만, 그 때라는 특수한 상황을 넘어 불교계 종단 내외에서 직합을 두고 스님들끼리의 갈등이 불거져 나올 때마다 한번쯤 스님들에게 보여드리고 싶은 그림이기도 하다.

요사이 조계종 총무원장 선거를 앞두고, 과열되어가는 분위기 속에 승단의 치부들을 서로 드러내는 상황이 재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는 천만 불자들은 이번 총무원장 선거가 끝나면 그동안 개혁총단의 노력에 의해 작으나마 회복되었던 불교의 위상이 다시 한번 밑바닥으로 곤두박질치지 않을까 하는 불안에 가슴졸이고 있다. 갈등과 분열 속에서 상대방을 비난하는 풍토는 결국 양쪽 모두를 치욕의 구렁텅이에 빠뜨릴 뿐 아니라, 승단 자체의 권위를 회복불능의 상태로 만들어버린다. 부처님의 적자로서 모든 불자들이 이끌어갈 승단이 권위를 잃는다는 것은 결국 불교를 통해 장악하려고 했던 승단 자체가 설 자리를 잃게 만든다. 모두에게 비참한 패자의 자리밖에 돌아갈 것이 없는 싸움으로 총무원장 선거가 진행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현실성 없는 이상론일지 모르지만, 스님들에게 있어서 지위와 감투라는 것은 본디의 출가수행이라는 목적에 비하면 본디 짝이 없는 장애가 될 뿐이다. 마땅히 서로 피해하려고 애써야

할 일이다. 한걸음 더 물러서 이야기한다 하더라도, "도덕과 수행에 있어서야 내가 다른 분과 견줄 수 없지만 세속적인 일처리에는 좀 뛰어난 편이니, 그런 뒤처닥거리는 제가 맡는 것이 낫겠습니다" 하는 선에 머무르는 것이 온당할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될 때야 스님들의 권위가 서고, 승단이 살고, 불교가 올바로 선다.

이렇게 이상론에 가까운 주문을 하는 것은 출가 승단이야말로 부처님이 일으킨신 가장 청정한 공동체요, 승단의 청정한 규범은 바로 온 중생이 본받아 이상적인 세계를 건설할 모범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온 세상을 깨끗한 세상으로 만들어가야 할 근원이 되는 승단 자체가 혼탁한 모습을 보인다면, 부처님의 가르침을 아무리 크게 외쳐댄다 할지라도 공허한 말에 지나지 않게 되어 버린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득력 있는 것으로 만드는 가장 기본적인 힘은 승단의 청정성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개혁총단 출범 이래, 일정한 한계는 있었을지라도 불교의 사회적 위상은 상당히 회복되었다. 그 힘을 이어 부처님의 가르침을 현실화하는 길을 더욱 더 힘차게 걸어야 할 이 마당에, 그 힘의 근원인 승단이 거꾸로 그 힘을 갉아먹는 모습을 보여서는 안될 일이다. 천만 불자들을 포함한 온 국민의 개인 눈들이 엄하게 지켜보고 있는, 만일 불교 자체를 치욕의 구렁에 빠지게 하는 바람직하지 못한 양상이 계속된다면 그러한 상황을 연출하는 모두를 패자로 내민 짝은 없 할 심판관이 될 것이다. 그러니 그렇게 되면 결국 모든 불자들이 패배자가 되고 만다.

부처님의 적자로서 가장 존엄한 위치를 지녀야 할 승단의 존엄성이 실추되지 않도록, 출가 승단 자체의 권위는 승단이 스스로 지켜주기를 다시 한번 당부한다.

종법개정 심의 연기 조계종총회 7월말 재소집

조계종 132회 임시총회(의장 실정)가 5일간의 회기를 채우지 못하고 17일 오후 산회했다.

15일 개최된 총회는 16일 오후 중앙총회의원선거법 제10조 '선거권이 없는 자' 조항을 축소심의하며 6항인 "본종 승려로서 사실사함을 소유하고도 종단에 등록하지 아니한 장건주 및 그 운영권자(실질적 운영권자 포함)와 그 도제" 대목에서 논란을 빚었다. 결국 논란은 다음 날까지 계속 됐으나 의원스님들 간의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고 일단 회의를 산회하는데 합의, 17일 오후 산회를 결의했다.

총무원 총무보고에서 의원스님들은 초심회계위원회의 본사 주지 스님들에 대한 중징계 결의와 여의도불교문화센터 관련 의혹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총회는 여의도불교문화센터 문제와 관련 호법분과위원회(위원장 진가)가 진상을 조사하기로 결의했다.

"본종산하법안내책특별위원회"를 해체 결의한 총회는 '종법 개정특위'를 '중헌종법개정특위'로 확대 개편 11명의 위원을 선출했다. 그러나 일부 의원스님들은 '중헌종법개정특위' 구성의 가부를 묻는 포결이 참석원의 과반수를 넘지 않은 16명의 찬성으로 결의된 것은 잘못이라며 원외무효를 주장했다.

총회 의장단은 각종 선거법 등 행정법안을 보완 7월말까지 시 총회를 소집할 방침이다.

임연태 기자

중앙신도회 운영위 27일 회장직대 선출

조계종 중앙신도회는 27일 운영위원회를 열어 송재건회장의 사임에 따른 대책을 논의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또 회장직무대행 체제 유지 여부를 논의한다. 이날 회의는 지난 3월 회장직 사의를 밝힌 송재건회장의 소집으로 열린다.

정성운 기자

공원입장료 폐지 '갈팡질팡'

생태계 보전비 징수검토 등 부처간 이견

국립공원 입장료 폐지에 대한 관리공단과 정부 의견이 다르다. 정부산하단체의 경영혁신방안을 마련중인 기획예산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최근 "국가재정이 어려운만큼 국립공원관리공단에 대한 재정지원을 축소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으며 이미 환경부와 공단측과의 조율을 거쳤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국립공원관리공단의 경영혁신방안 보고서에는 입장료폐지 문제가 포함돼 있지 않다고 밝



◇조계종 중앙총회는 17일 태고종이 선암사에서 총무원을 철수할 것 등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태고종은 16일 선암사에서 총회를 열고 태고총림법을 제정 공포하고 종단차원에서 선암사를 운영하기로 했다.

선암사 놓고 조-태갈등 심화

조계종 총회 '재산관리권 인수' 결의 태고종 총림법제정 종단차원 운영

순천 선암사를 둘러싼 조계종과 태고종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조계종은 10일 전남지역 5개 본사 주지와 공동 명의로 성명을 발표하며 17일 중앙총회에서 결의문을 채택 태고종이 선암사에서 총무원을 철수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 조계종 중앙총회는 결의문을 통해 △선암사 총무원 즉각 철수 △조계종 총무원장이 임명한 주지의 취임을 방해 말 것 △70년 종단등록당시 황종 종헌과 각사의 원칙 이행 △문화관광부 장관은 순천시장의 재산관리인 자격을 해임하고 그 권리를 조계종에 인계할 것을 촉구했다. 또 총회는 △지난 10일 발표한 조계종 총무원과 전남지역 5개 본사주지 공동 명의 성명서 적극 지지 △총무원 집행부에 선암사 환수를 위해 종단의 모든 역량을 기울일것을

촉구하며 중앙총회 의원 일동 또한 집행부와 함께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도 천명했다.

조계종 중앙총회의 결의문 가운데 현재 순천시장이 집행하고 있는 선암사 재산관리권을 조계종으로 인계할 것을 주장한 부분은 조계종이 보다 적극적으로 선암사 소유권을 행사하겠다는 의지로 보여 주목된다.

태고종은 16일 선암사에서 제 75회 임시총회를 열고 태고총림법을 제정 공포했다. 태고총림법은 선암사를 태고종의 총림으로 규정하고 총림운영에 총무원장을 비롯한 총무원 간부가 직접 관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3월 25일 선암사 승려대회의 결의에 따라 제정된 태고종 총림법은 총무원장을 당연직 주지로, 운영위원회를 통해 중요 사항을 심의 결의하도록 규정하

고 있다. 주지와 부주지가 운영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맡도록 한 운영위원회는 총림의 행사, 재산관리, 인사, 예산결산 등 실질적 운영 전반을 관장하도록 해 선암사를 사실상 태고종 총무원이 운영하도록 했다.

태고종의 총림법 제정 공포에 대해 조계종측은 "선암사가 조계종 소유 재산임에도 불구하고 태고종이 총무원을 옮긴 것도 어불성설인데 총림법까지 제정해 선암사를 운영한다는 것은

더욱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며 총무원의 철수를 촉구했다. 태고종측은 "태고총림법을 근간으로 선암사를 종단의 근본 도량으로 지켜가겠다"고 밝히고 있다.

40년을 이어 온 조-태분규의 열쇠가 될 수도 있는 선암사 문제를 두 종단이 어떻게 풀어나갈지 귀추가 주목된다.

관련기사 21면

임연태 기자

<ylim@buddhania.com>

한중일 교류협 연락위 준비모임 7월3일 서울서

한중일국제불교교류협회 연락위원회의 구성을 위한 준비모임이 7월 3일부터 5일까지 서울 영배서터 호텔에서 개최된다.

이번 준비모임에서는 올 가을 서울에서 열릴 예정인 연락위원회 회의의 준비사항을 점검한다. 준비모임에는 한국측에서 홍파스님(관음종총무원장) 능관스님(조계종 총무원 사회부장) 자철스님(종단협 사무총장)이 참석

하며 일본에서는 후나우끼(船岡芳昭) 한중일국제불교교류협회 임이사) 다카하시(橋本聖圓) 오니이시(大西眞興) 한중일국제불교교류협회 사무국장) 스님이 중국에서는 신재부(申在夫) 중국 불교협회부서장) 장림(張琳) 장택서(張澤西) 중국불교협회변공실부주임) 등이 참석한다.

임연태 기자

군법당 회계관리 '주먹구구'

조계종 실사보고...지출점검등 불가능

조계종 포교원이 군법당들 사이에 알짜배기로 통하는 군법당에 대한 지도방문 결과 "재정투명성에 의혹이 제기된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동안 군법당에 대해 비민주적 운영, 재정 불투명 등의 지적들이 있었으나 종단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문제를 지적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포교원은 지난해 12월과 올 3월 호국원광사, 통해사,

법용사, 금련사에 대한 실사 보고서를 최근 임시총회를 앞두고 총회사무처에 제출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회계장부가 없거나 있더라도 부실 기재하여 재정의 투명성에 의혹이 제기되며 △재정수입이 건설한 군법당으로서 군포교 기여도가 적으며 △삼엄운영위가 활성화 안돼 군법당 운영의 민주화 공개

화가 실현되고 있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재정관리와 관련 포교원은 △회계장부를 수입지출이 발생할 때 기록치 않고 일시에 작성하거나 △영수증 등 증빙서류 미확보 △관함목이 분리되지 않아 세부적인 지출에 대한 점검이 불가능하게 회계장부를 관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포교원은 예결산 양식과 회계규정을 세칙으로 정하고, 군법당 상임운영위 구성을 의무화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성운 기자
(swjung@buddhania.com)

737-8881

현대만평



통일로 가는 길...

부처님 진신사리 친견

무무물 산자락에 안겨 걸리고 구안산 바라보며 피어난 연화상에 그 위용 담담히도 우뚝 솟은 자명사 미묘한 열화미소 슬그머니 나루시고 안온히도 누히 제신 백옥 와불님!



주지 효성스님

적멸보궁 자명사 개원 대법회

한국 최대 백옥 와불 이은식



▲무심전에 모신 국내 최대 백옥 와불 후불탱화는 10대 제자상으로 조성됐다.

▼충천 구안산에 조성된 적멸보궁 자명사 전경



2천5백년전부터 태국 승왕이 모시는 부처님 진신사리 3과가 봉안된 적멸보궁이 강원도 홍천 구안산에 건립되었습니다.

적멸보궁 자명사(慈明寺)는 4천여평의 대지에 1차로, 지상2층 지하1층의 연건평 3백50평규모의 무심전과 요사채를 낙성하고 오는 7월5일 개원 대법회를 봉행합니다. 또한 개원법회에 맞춰 부처님 진신사리 친견과 국내 최대 규모(길이 3m·무게 4t)의 백옥 와불(臥佛) 이은식을 함께 거행합니다. 친견하는 그 순간 마음이 시원하게 맑아지는 법력을 체험하게 된다는 백옥 와불은 태국에서 조성돼, 대만 고성인대사(聖印·前 대만 만불사주지)와의 각별한 인연으로 한국에 모셔져 이번에 자명사에 봉안되는 것입니다.

적멸보궁 자명사 개원 대법회에 전국의 사부대중께서는 두루 동참하시어 부처님 진신사리 및 백옥 와불 친견의 인연 공덕으로 해법(慧法)이 충만하시길 삼가 기원합니다.

구안산 적멸보궁 자명사 주지 효성 합장

대법회 안내

■중 명: 한국불교 법륜종 종정 - 菴大總사 대한불교 총화종 前總정 菴翁大總사 대만 만불사 부주지 常上노사 (대만성 자명상공高校 간사장)

■일 시: 1998년 7월5일(음 윤5월12일) 오전 11시

■장 소: 강원도 홍천군 북방면 구안리 산84

적멸보궁 자명사 ☎(0366)434-1571/435-1571

♣고 통 편: 철도 경춘선 강촌역에서 하차 말봉신방향으로 15분거리 (강촌역서 자명사서 셔틀버스가 운행합니다)

·서울지역 출발/종신 운영사 앞에서 행사명일 오전 7시 출발합니다. (전철 2호선 구의역에서 마을버스 2번 용암시장을 타시면 제일까지 됩니다)

용 암 사 ☎(02)446-1571

※ 자명사는 개원을 맞아 만능으로 무명을 밝힙니다. 만능불사에 많은 동참바랍니다.